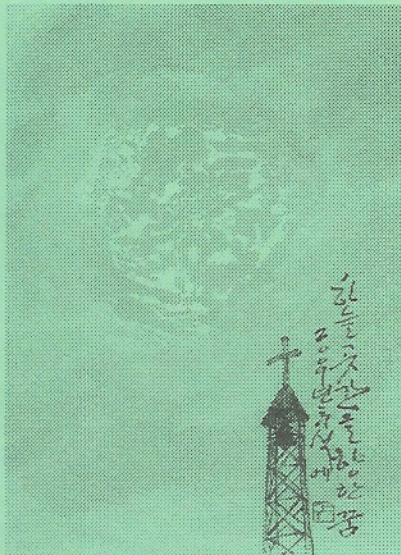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한가위, 연중 제27주일(묵주기도 성월)
제29권 45호(나해) 2009 · 10 · 4

[묵상]



‘하늘
공간을
향한
꿈’

2009년
추석에

허삼두
스테파노/
화가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느니보다
내가 먼저 그의 바람을 채워 주리라.
남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사느니보다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신뢰의 손을 펼치리라.
남이 나의 명예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까
두려워하며 사느니보다
내가 먼저 그의 명예를 보존해 주고
그의 자유를 존중하리라.
나의 권리를 찾기보다 먼저
그의 권리를 인정해 주고,
내가 먼저 그를 정중히 대하고
그가 기뻐하도록 마음을 쓰며,
내가 먼저 그의 실패나 결점을 나무라지 않도록 하며,
내가 먼저 친절하고 따스한 미소와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를 맞이하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있는 그 곳에는
항상 즐거움과 고마움이 깃들게 하리라.
오 하느님, 제가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모든 호의를
우선 제 마음에 품어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래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미사 (레지오) 저녁미사	오전 9:00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PACEM모임(매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7:3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 꾸리아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2:3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310)326-435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생)조지 가보라, 민석준 토마스와 영준 마르코, 황윤철 베드로, 신우용 안토니오, 남인구 야고보와 정선 안젤라, 김풍길 바오로와 재희 모니카
주 일 낮 미사	(연)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는 한가위 합동 위령미사 (생)송동범 베드로와 기순 엘리사벳 가정, 정동호 하상 바오로와 병옥 율리아 가정, 최석원 클레멘스, 황유선 비비안나, 양영은 카타리나, 안연숙 루피나, 장영진 안토니오와 레지나 가정, 최성자 카타리나, 이재용 안드레아와 안젤라 가정, 최등미자 벨라탸타, 김원호 요셉과 안젤라 가정, 김원모 웬델리노와 체칠리아 가정, 이석진 베드로와 명자 마가렛,희원 안젤라 가정, 신철규 미카엘, 윤대옥 다니엘과아름 율리아나 가정, 신중신 다니엘과 영애 켈라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요엘(Joel) 2,22-24.26-27

화답송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제 2독서 요한 묵시록(Revelation) 14,13-16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복음 루카(Luke) 12,15-21

영성체송 주님, 땅이 당신 내신 열매로 가득하오니, 당신은 땅에서 난 양식을 먹이시고, 술로 사람 마음을 흥겹게 하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24	224
봉헌	382	264,229
성체	287	301,309
파견	394	330

서론

이러한 문제가 만들어낼 최종적인 결과는 비극적인 것이다. 장차 태어날 단계에서든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든 수많은 인간 생명이 파괴되는 현실은 극도로 심각하고 불안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고 불안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만연되면 그 결과로 양심 자체가 어두워져서 인간 생명의 기본적인 가치에 관한 문제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 세계 모든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5) 1991년 4월 4일부터 7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특별 추기경회의는 우리 시대의 인간 생명에 대한 위협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었다. 회의에 참가한 추기경들은 이 문제와, 이 문제가 전체 인류 가족과 특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제기하는 도전을 철저하게, 자세히 토론했다. 그런 후에 추기경들은, 현재의 상황과 오늘날 인간 생명의 가치를 위협하는 공격들을 고려하여,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닌 권위를 가지고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불가침성을 재천명해 줄 것을 한 마음으로 본인에게 청원하였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본인은 1991년 성령 강림 대축일에 형제 주교들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서한을 보내어, 주교단의 단체성 정신에 따라서 구체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서한에 답장을 보내주고, 귀중한 내용과 제안과 제의를 보내준 모든 주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이 과정을 통해서 주교들은 생명의 복음에 대한 교회의 교의적이고 사목적인 사명을 공유하려는 일치된 지향을 입증해 보여주었다.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반포 100주년 기념 직후에 쓴 앞의 서한에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비유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1세기 전에 노동자 계층이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선포함으로써 용기 있게 그들을 옹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또 다른 범주의 사람들이 생명의 기본권을 억압당하고 있는 때에 교회는 그와 똑같은 용기로써 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무를 느끼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위협당하고 멸시받으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사람들 편에서 복음을 외친다."

오늘날 연약하고 방어 능력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의 생명에 관한 기본권이 짓밟히고 있다. 지난 세기 말, 교회가 당시의 불의에 대하여 침묵할 수 없었다면, 오늘날에도 교회는 여전히 침묵할 수 없다.◆(계속)

천국 맛 보기

오늘은 한가위. 추석 명절. 생각만 해도 배부른 느낌. 말만 해도 넉넉한 느낌. 달만 쳐다보아도 풍성한 느낌. 동양 미인의 전형적인 얼굴, 보름달. 그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풍요로움에 있다. 나누고, 베푸는데 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너에게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 두둥실 떠 있는 보름달 때문이다.

차레를 격식에 맞추어 준비하고 지낸다. 마음을 추스리고 조상들의 음덕에 감사드린다. 깊은 예를 바치는 것은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조상들을 섬김은 우리들의 오랜 전통이다. 윗대 어른들에 대한 공경과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까운 친척과 형제들은 어떤가? 좋은 기분에서 만나 좋은 기분으로 헤어져야 하는데, 웬지... 석연찮음에 우리들의 마음의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만큼 너에게 해주어야 함'을 잘 알건만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나에게 해주지 않아 유감이 많다고 하필 우리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과 요구 사항이 많은 만큼, 그만큼 섭섭함도 크단다.

풍성한 마음에 나누어 줄 것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던 내가, 오히려 받지 못함에 섭섭해 하고 있다. 조상에 대한 섬김은 온갖 예우를 다하면서, 정작 형제들에 대한 섬김은 오히려 받으려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본다. 둥그런 보름달이 왜 풍요로움의 상징이 되고, 동양 미인의 전형이

되고, 부자집 만며느리의 얼굴 모습이라고 하는가? 착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아름다운 것이 착한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을까? 보름달의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착하게 만들고, 착해진 내 마음이 나눔과 베풀과 섬김이라는 사랑 실천에 앞장선다면, 이 사회는 분명 보름달의 빛을 받아 오늘 저녁이 환하듯이 밝은 사회가 될 것이고, 내 작은 사랑의 나눔이 이웃의 마음을 훈훈하고 환하게 할 수 있으리라.

자! 동무들아! 손에 손잡고 '강강술래'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피자꾸나. 우리 곁에 파스한 사랑을 기다리며 움츠리고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송편'을 빚자꾸나.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널뛰기'를 하고, 함께 목표를 맞추기 위한 '투호'를 하자꾸나. 마음 모아 힘 모아 영치기 영차 '줄다리기'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임을 나타내 보자꾸나.

오늘은, 사람들아! 둥근 내 얼굴과 함께 입술이 양 콧볼에 당도록 병글 병글 병그레 웃으며 '한사람의 행복이 만인의 행복이 되고, 만인의 행복이 한 사람의 행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어 보자.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천국의 첫 날이 되게 하자. 나눔이 넉넉하고, 베풀이 풍성하고, 섬김이 공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우리 모두 격이 있는 사람으로 품위를 갖추도록 하자.

◆김영곤 시몬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문재원 클로틸다	신덕례 데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박진수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현 크리스티나	황지영 안젤라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중철 아브라함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장미정 로사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치스카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시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4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 한가위 추석명절 합동 위령미사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아 오늘 주일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합니다. 올 한해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이 명절 미사를 봉헌합니다.

- 연도와 분향 : 10월3일 특전미사와 4일 주일 낮미사 중.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지난 4년7개월 동안 우리 백삼위 본당 신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해오신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께서 임기를 마치고 한국 천주교 부산 교구청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십니다.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신부님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송별미사 : 오늘 주일(4일) 낮 미사

◆ '백삼위 작은 음악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백삼위 작은 음악회에 참여하신 출연자, 준비요원, 진행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양업회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4일) 오후 1시 30분, 천교장
- 회비 : \$10.00

◆ 예비자(부활 세례반) 환영식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됩니다. 예비자 모집을 위해 전신자들이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영식 : 10월18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교리시간 : 10월22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컴퓨터 무료 교육

- 내용 : 컴퓨터 기초(인터넷 등)

- 일시 : 매주 화, 목, 토 오전 10시~11시30분
- 교육내용 : MP3, 음성녹음, CD굽기(6,8,10일)
디지털 카메라 사진활용(13,15,17일)
- 문의 : 김선제 바오로,권진열 피데스 요셉회 총무 ☎(310)800-3592

◆ 파푸아 뉴기니 아동을 위한 도서 기증

- 목적 : 문명과 동떨어진 밀림속 학교의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아동들에게 책을 보내줍니다.
- 도서기준 : 유치원~초등학교 수준의 만화, 동화 등 영어책
- 수집기간 : 10월18일(주일)까지
- 수집장소 : 천교장 앞쪽에 Box 비치
- 문의 :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 안나/요셉회 가을 온천 관광

- 일시, 장소 : 10월27일(화),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출발 : 당일 오전 7시30분 성당 주차장
- 55세 이상 형제 자매님들의 신청 바람. 56명 정원
- 회비 : 교우 \$20, 외부인 \$30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샌들
- 신청 : 이영희 카타리나 안나회 회장 ☎(310)518-1736
김금자 데레사 총무 ☎(310)539-9526
- 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성체신심 세미나 CD 판매

- 지난 8월26일~29일까지 본당에서 현요안 요한 신부의 지도로 개최됐던 성체신심 세미나의 CD가 완성됐습니다. 그날의 성령충만 기쁨을 되새기며 많은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값 : \$20(사무실)

◆ TV 와 DVD 플레이어 기증 바랍니다.

- 주일학교에서 새학기를 맞아 TV세트와 DVD 플레이어를 필요로 합니다. 뜻있는 교우분들의 기증을 바랍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주일학교장 ☎(310)780-1267

◆ 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0월4일(주일) : 추석맞이 전신자 국밥 대접
- 10월11일(주일) : 신임 신부님 축하 전신자 국밥대접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강숙경	강순복	권태만	금영도	김병조	김병태		강숙경	강순복	권태만	금영도	김병조	김병태
	김병학	김완태	김일선	김재영	김정웅	김태호		김병학	김일선	박종열	박주현	성낙호	신순철
	문두현	박종열	박주현	박진수	성낙호	신순철		엄혜은	오일순	유철희	육재민	이근태	이병우
	엄혜은	오일순	유철희	육근주	육재민	이근태		이인석	이효세	임종택	최길주	최원석	최진수
	이병우	이인석	이일길	이효세	임종택	정연영		한창주	황인중				
	조소영	최길주	최원석	최진수	한창주	황인중							
합계 : \$4,850							합계 : \$2,970						
미사헌금 : \$3,161.75							아프리카 선교후원금 : 신영웨버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 등록비: \$110, 둘째 \$80, 셋째 \$60, 자모회비 \$40
- 특히 2학년(첫영성체반), 9학년(예비 건진교리반), 10학년(건진 교리반)에 해당하는 학생은 꼭 등록해 주십시오.
- Liability 문제로 교구 지침에 따라 주일학교 학생은 반드시 등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국학교 2009~2010 학년도 1학기 등록

- 대 상 : 프리스쿨(만4.5세), K~12학년까지,
11월 SAT II 시험 준비학생(\$150, 교재비 포함)
- 등록비 : 첫째 아이 \$150, 둘째 \$140, 셋째 \$130,

◆ 신종 Flu 전염방지에 대한 LA 교구청 지침

1. 아이들이 손을 자주 닦도록 가르치십시오. 흐르는 수도물이나 비누로 닦고 또는 Alcohol-based hand rub 등을 이용하면 효과적입니다.
 2. 개인용품 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음료수, 음식, 수저, 식기, 휴지 등)
 3.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가능한 휴지로 입을 가리게 하시고, 휴지가 없을 때는 손이 아닌 팔로 입을 가리고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4. 아이가 감기가 걸려 아플 때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 또는 열이 내리고 아픈 증세가 완전히 없어져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게 되어도 24시간 이상 집에 더 머물게 하십시오.
 5. 손이 자주 닿는 곳 (책상, 컴퓨터, 문의 손잡이, 펜 등등)은 항상 깨끗하게 닦아 주십시오.
- 신종 Flu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flu.gov, 또는 ☎1-800-CDC-Info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소식

◆ 제2회 성음악 캠프(LA 국악 성가 배움터)

전례음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가주 가톨릭 음악인회 유빌라테 성가단이 마련한 연례행사입니다.

- 일시 : 10월24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 장소 : LA 성삼 한인천주교회
- 강사 : 강수근 바오로 마리아 신부(예수고난회)
- 참가비 : \$40(중식, 석식, 악보집 포함)
- 문의 : 김두진 바오로 지도신부
단장 이항 요셉 ☎(626)216-4555

이번 주 단체 모임

박상대 신부님 송별친교자리	낮 미사 후 친교장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경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김양금 안나 518-3041 10/9(금) 오후 7시30분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3	신덕례 데레사 634-6169	신덕례 데레사 634-6169 10/5(목) 오후 8시1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박정애 소화 데레사 218-7340	1	김순희 모니카 328-1817	김교복 레오 328-1817 10/11(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토마스&클라라 424-241-5988 10/6(금) 오후 7시
	3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장정진 베로니카 803-7798 10/13(화) 오전 10시 30분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최옥희 데레사 378-4183	배난군 세레나 325-7733 10/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이경수 헬레나 972-9193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0/16(금) 오전 10시30분
	3	이혜선 안젤라 793-7733	신현정 루시아 213-503-6035 10/9(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권병연 리디아 938-3255	1/2	최미열 클라라 895-8624	오스테파노 352-4679 10/9(금) 오후 7시
	3	대전회 : 거주지역반으로 배속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	김민수 바오로 530-3232	김민수 바오로 530-3232
	2	박혜경 레나타	이병우 마리노 953-7903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10/7(수) 오후 2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오희종 마르코 377-0828 10/9(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0/17(토) 오후 6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796-6763	이영석 크리스토폴 377-7063 10/15(목) 오후 7시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0 10/13(화) 오전 10시30분, 성당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을 보내드리면서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신부님께서 저희 백삼위 한인성당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벌써 네 해가 훌쩍 넘어 다시 부산교구로 되돌아가실 때가 되었네요.

신부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희는 전임 신부님과 함께 사제영업을 위해 Los Angeles 대교구와 약속한 사제관 신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3일에 부임하신 신부님께서 3월 6일 그 기공식을 단행하셨고,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훌륭히 사제관 공사를 마무리 하셨으며, 2005년 11월 30일에 이곳 San Pedro 지역의 Alexander Salazar 보좌주교님을 모시고 축복식을 거행함으로써 신부님을 포함하여 저희 신자들을 사목하시는 향후 신부님들의 숙소를 마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철희 바오로 평협회장을 독려하여 많은 신자들의 재정적 참여와 함께 신자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아늑하고 다목적적인 공간인 ‘야외 친교장’도 조성해 주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신축 사제관에 정착하신 후 2006년 1월 말부터 4단계에 걸쳐 10주씩 40주간 동안 신양학교를 개척하시어 하느님과 세상과 인간에 대한 폭넓은 앎을 선사해 주셨고, 평일미사 뿐 아니라 매주일 미사 강론 때에도 깊고 해박한 신부님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에 대한 저희들의 갈증을 풀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모두 기억할 수는 없으나, 신부님의 말씀은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정신적인 피와 살이 되었을 뿐 아니라, 저희 각자의 신앙심을 키우는데 기본이 되었습니다.

특히 2006년 9월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미주에서는 처음으로 남가주 사제협의회 회장이셨던 신부님의 지도에 따라 조국의 백삼위 순교성인들의 열을 기리기 위한 ‘한국 순교자 현양 대회’가 마련되었고, 이를 한국 주교회의의 이주사목위원장이셨던 이병호 주교님을 모시고 2500명 이상의 신자들과 함께 Los Angeles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여, 한국의 순교성인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성인들의 신앙이 저희들 각자에게 소중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신부님께서 저희 성당 사목을 위해 헌신하셨을 뿐 아니라, 남가주 사제협의회 회장과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많은 행정적인 사목도 함께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신부님의 많은 재능 중에 특히 음악의 특기를 발휘하시어, 남가주 유빌라테 가톨릭 성가동호회 지도신부로서 성음악을 사랑하는 신자들도 이끌어 주셨습니다.

4.4 에이커의 넓은 대지 위에 독자적인 성전과 사제관, 그리고 여러 편의시설을 함께 한 저희 백삼위 성당의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사귀며 섬기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성당 구석구석 모든 곳에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특히 신부님의 주도하에 동서남북으로 나란히 조성된 133그루의 사이프러스가 해마다 자라 오르는 만큼 저희의 신앙도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희 모두가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는 것은 신양학교와 미사강론을 통해 저희 신앙의 내용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엄숙한 성사와 전례집전을 통하여 저희 신앙의 행위를 돈독히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모두는 떠나시는 신부님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축복을 바탕으로 더욱 깊고 넓은 신앙생활을 영위할 것과 부단한 하느님 나라의 건설과 본당의 발전과 저희 자신과 가정의 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부님께서 이제 주교님의 명에 따라 부산교구로 돌아가시지만, 언젠가 다시 뵙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신부님을 보내드립니다. 저희 백삼위 한인성당의 모든 신자들뿐 아니라, 그동안 신부님을 통하여 많은 주님의 축복을 받았던 모든 신자들은 신부님께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빌며, 영육간의 건강과 펼쳐시는 성무에 보람과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모두 함께 기도드립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가십시오.

◆2009년 10월4일 / 백삼위 한인성당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 평협회장 이재정 사도요한 드림.